

2008 새해설계 ⑩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양기원

“마홀촌 사료 축산농가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G마크 획득으로 학교급식 우수축산물지원사업에 참여

“포천축협은 지난해 내적으로 경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각 사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지속적인 개혁과 체질개선에 노력해왔으며 외적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사양관리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으로 조합원의 든든한 유대관계와 소비자에 대한 이벤트 행사와 다양한 마케팅으로 조합원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감을 확립했으며 각종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축산농가를 위해 최대한 사료값 인상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포천축협은 친환경사업인 축분액비살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7년도에 85농가 110만2천604㎡(약 33만4천평)에 축분액비를 살포함으로써 지역내 자연순환농업활성화를 유도 및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업은 조합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합원의 도움과 전 직원의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예수금 1천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성장했으며 상호금융대출은 1천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사업 또한 군남 및 계룡출하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8.1% 성장했으며 마트사업의 경우는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 10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2천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포천축협은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을 팀별로 나눠 양돈, 축우, 양계 등의 농가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기원 조합장은 “포천축협은 신용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사업이 하나 둘씩 정착되어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트빌의 경우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하여 관내 학교에 양질의 고기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앞으로도 포천축협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물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통한 축산물유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중간상인을 배제하는 유통구조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포천축협의 조합장제 브랜드 사업인 마홀촌 사료가 관내 축산농가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경제사업협성화 방안으로 2003년도에 마홀촌 사료를 출시하여 2007년 한해 약 5만톤의 물량을 취급할 만큼 성장했으며 관내 타 사료회사의 사료가격 견제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올해에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값의 인상으로 어려워하는 농민들에게는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이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학교급식 우수축산

농업활성화를 위한 포천축협·영중농협 협약식을 가졌으며 올해는 액비사업활성화를 위해 자체예산 3억원을 들여 축분액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축협은 이 센터를 발판으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경중농가의 유기농업구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천축협은 지난 4월8일 조합내 회의실에서 장학금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교육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 자녀 57명(대학생 50명, 고등학생 7명)에게 모두 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포천축협의 2007년 신용사

업은 조합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조합원의 도움과 전 직원의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예수금 1천58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성장했으며 상호금융대출은 1천4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천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포천축협은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직원들을 팀별로 나눠 양돈, 축우, 양계 등의 농가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기원 조합장은 “포천축협은 신용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사업이 하나 둘씩 정착되어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트빌의 경우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하여 관내 학교에 양질의 고기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양 조합장은 앞으로도 포천축협은 농가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행복한 보험이야기 28

재테크의 기본

요즘 사람들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재테크이다. 주위에서 펀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텔레비전의 ‘겅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에서도 번역 보험이나 펀드 등 재테크에 관한 이야기가 빈번히 나와 경제 상식을 알려주고 있다.

재테크라고 하면 부동산, 주식, 펀드 등을 떠올리면서 보험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재테크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번다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풍요롭게 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다. 젊었을 때 번 돈을 효과적으로 운용해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보험이 재테크의 기본수단이다.

재테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려면 보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무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를 다지며 버팀 줄 수 있는 것이 보험이다. 보험을 빼제하고 재테크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래

위에 튼튼하게(?) 세운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새내기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사이에서도 등록금 마련이나 용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테크를 하기 위한 자본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재테크 동아리까지 생겨나고 있다. 주식투자를 하기 위하여 주식 관련 동아리에 가입해 기초지식을 쌓고 증권사에서 실시하는 모의 투자에도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얼마 전부터 유치원에서도 경제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어려서부터 경제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작은 훈련을 가정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부자의 첫 걸음은 종자돈 만들기부터라 한다. 용돈을 아끼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종자돈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인생 설계에 있어서 목돈 마련에 큰 교훈이 될 것이다.

대학생활 같은 경우에 재테크의 기초를 배워 나가면서 경제생활 전반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시기로 삼아 초석을 다져 나가야 한다.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초기 재테크가 매우 중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우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작한다. 최근 한 취업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 5명 중 1명이 연봉의 50% 이상을 재테크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겨냥한 재테크 관련 도서가 꾸준히 높은 판매고를 올리는 등 재테크도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이 요즘 청년들이다.

결혼을 30세에 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비중 있게 준비해야 할 자금은 바로 결혼자금이다. 남자에게 있어 결혼자금은 바로 주택 마련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장기주택마련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30대에는 나 혼자만 아닌 가족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목돈 마련에 돌입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종신 보험은 필수조건이다. 가장의 불의의 사고로 인해 뜻하지

않게 경제활동을 멈춰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종신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똑같은 보장을 비싼 보험료로 감당해야 한다. 보장의 범위도 다양할 뿐 아니라 상속을 준비하는 수단으로도 가장 적합하다. 부자들의 고민은 모아 놓은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상속세 부담을 줄여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은 신속히 처리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처분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보험은 상속세로 즉시 현금 대체가 가능하다.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부자이다. 부자들은 세금을 민감하다. 보험은 장기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또한 재테크의 기본이라~

이미정
코인스 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⑬

(주)성일플라텍

건설폐기물을 고품질 순환골재로 변신



사장 윤영창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고자하는 노력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의 실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여기에 따른 환경의 규제와 자원의 재사용, 친환경적인 주거문화를 위해 효율적인 모든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 추세다.

도시의 재개발과 아파트 등 건축물의 해체나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벽돌, 폐블록, 폐콘크리트 등의 부분별한 불법적 폐기물의 처분은 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공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웅장한 광음을 내고 있는 거대한 플랜트 시설의 기동과 질세감이 오가는 덩크프력이 이 업체가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윤영창 사장의 안내로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엄청난 크기의 정수시설과 반입되는 원료가 물에 씻기면서 흙빛 물들이 펄펄되어 순환 가동되고 있음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1일 성일플라텍의 건설폐기물 처리용량에 대해 윤 사장은 “하루에 3000톤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파쇄, 세척, 정제를 거쳐 모래를 600투베(15톤 덩크 60대 분량)를 처리, 생산할 수 있다”며 “한달 동안 운반차량과 중기에 소모되는 유류는 약 1억5천만원 가량이며 약 30여명의 직원들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므로 고용준비면에서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초기투자에 따른 손실이 보전되면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폐기물 정책이 기존에는 발생억제와 피해의 최소화 쪽으로 전개해 왔으나 자원의 재활용정책에 부응하여 건설폐기물도 정제된 골재를 매립, 복토용에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품질 인증을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받아 철거와 연

1일 3000톤의 건설폐기물 처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로 성장

경과 문제를 야기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부추기고 있어 폐자재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간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주)성일플라텍(사장 윤영창,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888-5)은 도시화와 산업화추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기존업체에서는 선별과 파쇄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이 혐오시설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으나 이곳 시설은 모든 폐기물이 다단계의 세척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으며 설퍼나 모래 등 이물질이 완전분리되어 순도면에서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또한 세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공작폐수를 완벽한 정수시설을 거쳐 재사용하기 때문에 폐수로 인한 하류지역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계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 약 370여 개소의 동종업체가 있으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원가절감 차원에서 불법적인 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였으나 (주)성일플라텍은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2011년 경 코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방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건설폐기물을 이용한 관공공사에 재활용 범위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순환골재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체가 관내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 환경, 미래를 생각하는 (주)성일플라텍이 환경오염원 제거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전화 TEL.031-533-0050, HP.011-742-2412
정영갑 기자 jpk61@paran.com



(주)성일플라텍은 도시화와 산업화추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다단계의 세척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으며 설퍼나 모래 등 이물질이 완전분리되어 순도면에서 고품질의 순환골재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왜냐하면 국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절세”라고 할 수 있으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은 “탈세”로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670-4482~4489)

작은기대 큰 만족 포천신문 광고가 책임지겠습니다!

- 대표전화 : (031)542-1507
- 일반구독료 : 5,000원/월
- 광고문의 : (031)542-9888
- 일반구독료 : 50,000원/년
- 구독신청 : (031)542-9889
- 평생구독료 : 500,000원/평생

http://www.ipcs21.com

산업안전사고 예방

원석파쇄기 점검을 위해 파쇄기 상부 이동중 추락

▶재해발생 개요

• 2000년7월0일10시경 석제품 제조작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파쇄기 투입부에서 파쇄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파쇄기 상부로 이동중 2.7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

• 파쇄기(Con Crusher)로 올라가는 계단통로 측면에서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간판을 설치하여 야 하나, 지면으로부터 높이 2.1m~2.7m(폭:30cm)사이의 계단 측면에는 안전간판을 미설치 나, 안전모를 추락방지용 보호구 미착용

• 지면으로부터 높이 4.4m 지점에 위치한 파쇄기 투입구 점검 등의 작업은 2m 이상의 고소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미착용한채 이동함.

▶중재대책

가.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실시

• 기계, 설비의 바다,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간판 등을 설치하여야 함.

나. 2m이상의 고소작업시 안전모 등의 보호구 착용

• 높이가 2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락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시 연금보험료 납부 특례 신설

■개정내용
종전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자격상실과 동시에 공단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었으나, 이를 징수권 소멸사유에서 삭제함과 아울러 일반적인 공단의 징수권 소멸 시효인 3년과 같이 납입고지에 따른 납입기한 경과 후 3년동안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

Q 60세가 넘어서 계속 가입하던 가입자인데 만약 여력이 없어 미납된 월이 있는 경우 탈퇴 처리되고 다시 가입해도 미납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종전법에서는 60세 이후에 계속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였던 분들이 연속 3개월 미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일 이후에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가입하게 되면 가입이후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3개월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Q 그전 본인이나 가입자가 없어 자진해서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A 예, 상실사유에 상관없이 법 개정 이후에 자격이 상실된 분들은 모두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지급사유를 양양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